

#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 취업모의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권소정<sup>1)</sup> 이강이<sup>2)</sup>

---

## 요약

---

본 연구는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만 6세 취업모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직·간접돌봄지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취업모의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취업모, 유아, 교사 669쌍이다.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직·간접 돌봄지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타 직군을 제외하고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집단에서 간접돌봄지원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토대로 취업모가 자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근무 유연성 확보 등 근로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직업군마다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 및 돌봄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 취업모의 근로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학습준비도,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 취업모 근로특성

---

## I. 서론

만 6세 시기는 초등학교 전이를 앞두고 자녀의 학교진학 준비에 대한 부모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학업 수행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또래 및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능력,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등 전반적인 학습준비(school readiness)가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녀의 학습준비에 대한 우려는 다수

---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수료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의 어머니가 경험하나, 특히 시간과 정보의 부족을 경험하는 취업모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김나현 외, 2013). 취업모가 양육에 할애하는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평균 3.5시간으로 전업 주부 어머니가 평일 평균 양육에 참여하는 6.9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며(김은설, 2012), 적은 양육참여 시간은 취업모로 하여금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야기한다. 또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의 기점으로 어머니 취업률과 상근직 비율이 감소하고, 근로시간과 임금 역시 감소하는 등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이 보고되는 점(이재희·김근진, 2018)을 고려할 때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준비와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고민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취업모와 유아기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대해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학습준비도(school readiness)란 초등학교 학습에서 요구되는 기초지식, 기술, 태도, 동기 등의 획득 정도로,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초등교육과정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May & Kundert, 1997)을 의미한다. 이는 기초적인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을 포함한 다면적인 개념(Kagan, Moore, & Bradekamp, 1995)이다. Murphey와 Burns(2002)는 학습준비도의 하위요인으로 사회정서발달, 의사소통능력, 학습에 대한 태도,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정서발달이란 규칙을 준수하고, 또래 및 교사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Campbell & Stauffenberg, 2008). 의사소통능력이란 말하기와 듣기, 단어와 문장을 통해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Dockett & Perry, 2009; Murphey & Burns, 2002). 학습에 대한 태도란 동기부여, 호기심, 인내심과 같이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및 성향을 말한다(Duncan et al, 2007; Murphey & Burns, 2002). 마지막으로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은 간단한 지식의 함양, 글자와 말소리에 대한 이해, 정보의 저장 및 조작능력을 가리킨다(Welsh et al, 2010; Murphey & Burns, 2002). 학습준비도 수준이 높은 아동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성공적으로 학교에 적응하고, 높은 학업성취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수정·곽금주, 2012; Ladd, Birch, & Buhs, 1999). 반면 학습준비도가 낮은 유아는 입학 이후 지속적인 학업문제를 보이고(Entwisle, Alexander & Olson, 2005; Rouse, Brooks-Gunn, & McLanahan, 2005), 또래 및 교사와의 충돌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Rudasill et al, 2006; Vaughn et al, 1992).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 간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경험에 주목할 수 있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이란 부모와 자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끊임없이 상호 교환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조절의 과정이다(Belsky, Gilstrap, & Rovine, 1984).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학령기초의 전이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인지적 능력, 의사소통 기술 및 학업수행 능력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Connell & Prinz, 2002).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취업모와 자녀에게서 특히 의미를 가지는데, Hsin과 Felfe(2014)는 취업모가 자녀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을 경험하더라도, 양질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자녀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선행연구는 양질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취업모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케 한다.

이렇듯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유아와 직접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한다면, 주양육자 외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여러 돌봄지원 역시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돌봄'이란 물리적, 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실질적인 행동으로(김승용·정미경, 2006), 본 연구에서 돌봄지원이라 함은 자녀의 보육·교육 등의 돌봄을 위해 제공받는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을 의미한다. 특히 취업모 자녀의 경우, 비취업모 자녀보다 빈번하게 타인에 의한 돌봄이나 도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모 자녀가 제공받는 여러 형태의 돌봄지원과 유아의 학습준비도의 관계를 살펴봄직하다.

취업모 자녀가 경험하는 돌봄지원은 직접돌봄지원과 간접돌봄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직접돌봄지원이란 취업모가 부재한 시간에 혈연 또는 비혈연의 지인으로부터 보육 또는 교육을 위해 대리양육을 받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형태의 돌봄지원을 가리킨다. 대리양육자가 제공하는 돌봄시간에 따라 어머니와 대리양육자의 역할수행 정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어(정미라·최혜정·강수경, 2015),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직접돌봄지원의 정도는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직접돌봄지원이 주양육자 외 타인이 취업모 자녀를 직접 돌보는 행동을 가리킨다면, 간접돌봄지원이란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구, 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직접돌봄 외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지원을 말한다. 이는 위로, 신뢰와 같은 정서적 지원, 일손 도움과 같은 도구적 지원, 휴가나 여가활동 공유와 같은 사교적 지원, 자녀교육, 살림살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원을 포함한다. 취업모가 학부모 간의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면서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박혜경, 2009; 이민경, 2007)를 고려할 때, 네트워크로 작용하는 사회적 지원의 존재는 유아의 학습준비도 향상에 기여할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취업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원의 도움 정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발달과 관련된다(김숙영, 1995)는 선행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받는다.

한편,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모 관련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어머니의 근로특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취업모는 취업동기, 개인 및 가족 자원,

작업환경, 가치관, 계층 등에 따라 이질적이고 다면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집단이다(조은숙, 1997).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동일한 '취업모'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상이한 근무환경 및 가정환경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양상이나, 취업모가 경험하는 돌봄지원의 양상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단순히 취업 여부가 아동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므로(방경숙, 2004; Milkie, Nomaguchi, & Denny, 2015), 취업모 집단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기 자녀의 학습준비도를 살펴본 연구가 요구된다.

취업모의 다양한 근로특성 가운데 특히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취업모의 근로시간과 직업군을 고려할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학습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데(Adi-Japha & Klein, 2009), 일반적으로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양육에 투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을 경험하며(김은설, 2012), 연장근로로 인해 자녀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욱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된다(성혜영, 2010). 따라서 취업모의 긴 근로시간은 자녀양육 시간의 부족을 통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취업모의 근로시간과 더불어 어머니가 어떤 직업군에서 속하는지 역시 어머니 취업과 유아의 학습준비도 간의 관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어머니가 종사하는 직업군은 총 근로시간 및 유연한 시간활용, 신체적 및 정신적 소진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며,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 정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김대일, 2008), 이는 직장 외 시간에 가정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취업모가 종사하는 직업군은 자녀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차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유홍준·김월화, 2006; Kalmijin, 1994), 취업모가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이윤정, 2014), 이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직·간접적인 돌봄지원의 차이와 관련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근로시간과 직업군을 근로특성으로 고려하여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및 돌봄 관련 요인을 탐색해볼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유아의 학습준비도를 알아본 선행연구들은 상당수 존재하나, 많은 선행연구들은 학습준비도의 인지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이수현·황혜정, 2014; McClelland et al, 2007). 사회정서발달을 포함하여 살펴보고 있는 일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정혜영·정옥분, 2011), 저소득층(Raver et al, 2011) 등 소외계층에 주목하거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전하람·임혜정, 2016), 일반적인 유아를 대상으로 사회정서발달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습준비도 양상을 탐색해볼 필요성을 남긴다. 특히 취업모에게 자녀의 학령기 전이를 앞둔 시점은 일-양육 병행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재희·김

근진, 2018)라는 점이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취업모를 둔 유아기 자녀의 학습준비도 양상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도출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취업모 자녀의 학습준비도(사회정서발달/의사소통능력/학습에 대한 태도/인지적 능력 및 일반적 지식)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부모-자녀 상호작용, 돌봄지원(직접돌봄지원/간접돌봄지원)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취업모의 직업특성(근로시간/직업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유아의 학습준비도(사회정서발달/의사소통능력/학습에 대한 태도/인지적 능력 및 일반적 지식), 부모-자녀 상호작용, 돌봄지원(직접돌봄지원/간접돌봄지원), 취업모의 근로시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4. 부모-자녀 상호작용, 돌봄지원(직접돌봄지원/간접돌봄지원)은 유아의 학습준비도(사회정서발달/의사소통능력/학습에 대한 태도/인지적 능력 및 일반적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돌봄지원(직접돌봄지원/간접돌봄지원)의 상대적 영향력은 취업모의 근로조건(근로시간/직업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유아·어머니·교사 669쌍이다. 연구대상 유아는 다음 해 초등학교 전이를 앞둔 만 6세로( $M = 75.2$ 개월,  $SD = 1.4$ 개월),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등 한 가지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였다. 어머니가 취업 상태일 경우 연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취업 기준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주당 1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고한 경우, 상용직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가족 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가 없더라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가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통상적인 인식의 ‘취업’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다소 짧으며(통계청, 2017), 초등학교 전이 시기에 어머니의 상용직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점(이재희·김근진, 2018)을 고려하여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669)

변수	구분	빈도(%)
유아	성별	
	남아	334 (49.9%)
	여아	335 (50.1%)
어머니	연령	
	36세 미만	170 (25.4%)
	36세 이상~40세 미만	353 (52.8%)
	40세 이상	146 (21.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2 (25.7%)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183 (27.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314 (46.9%)

## 2. 연구도구

### 가. 유아의 학습준비도

Murphey & Burns (2002)가 제작한 교사평가용 학습준비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사회정서발달, 의사소통능력, 학습에 대한 태도,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학습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시문항으로는 사회정서발달은 ‘감정의 변화를 적절하게 표현한다.’, 의사소통능력은 ‘간단한 지시, 요청, 정보를 이해한다.’, 학습에 대한 태도는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15분 정도 지속한다.’,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으로는 ‘활동을 기억하고 사건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사회정서발달은 .75, 의사소통능력 .81, 학습에 대한 태도 .87, 인지적 능력 및 일반적 지식 .77로 나타났다.

### 나. 부모-자녀 상호작용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sup>1)</sup>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문는 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을 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어머니 응답으로 측정되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시문항으로는 ‘요리, 청소, 상차리기, 애완동물 돌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아이와 함께 한다.’, ‘아이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등이 있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신뢰도 계수는 .84였다.

#### 다. 직·간접 돌봄지원

취업모가 받는 돌봄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D.보호자용 질문지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직접돌봄지원은 혈연 및 비혈연이 제공한 주당 대리양육 횟수와 1회 평균 대리양육을 제공한 시간을 곱하여 주단위의 대리양육시간으로 연구자가 산출하였다. 간접돌봄지원은 취업모가 받는 사회적 지원 정도의 응답을 활용하였으며,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시문항으로는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 준다.’,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등이 있다. 간접돌봄지원의 신뢰도 계수는 .95였다.

#### 라. 취업모 근로특성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D.보호자용 질문지의 어머니 주중 및 주말 근무 일수와 1일 평균 근로시간 정보를 통해 주단위 근로시간으로 연구자가 산출하였다. 산출된 주당 근로시간 자료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맞벌이 가구의 여성근로시간이 평균 35.0시간(통계청, 2017)이라는 근거에 따라,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집단과 35시간 이상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에 반영하였다. 어머니의 직업군은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생성한 직업군 대분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2018)의 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 기타 직군으로 재분류 및 조작적 정의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전문기술직과 사무관리직은 응답을 그대로 활용하고, 서비스직과 판매직은 근로특성이 유사함을 고려하여 하나의 직군으로 묶어 ‘판매서비스직’ 직군을 형성하였다. 위 세 직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타 직군’으로 분류하였다. 직업군별 상위 비중을 차지한 세부 직업은 <표 2>와 같다.

1) 1989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종단 패널조사 데이터로 유아기부터 8학년까지의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유아교육 관련요인들을 추적조사함.

〈표 2〉 직업군별 상위 비중을 차지한 세부직업 및 근로시간 특성

직업군	세부직업 (명)	주당 근로시간 <i>M(SD)</i>
전문기술직 ( <i>N</i> =285)	•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70)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64)	35.99 (11.30)
사무관리직 ( <i>N</i> =178)	• 학교교사(46) • 간호사(27)	41.09 (8.93)
판매서비스직 ( <i>N</i> =131)	• 경영 관련 사무원(68) • 회계 및 경리 사무원(44)	43.63 (15.19)
기타 ( <i>N</i> =75)	• 주방장 및 조리사(16) • 이/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12)	40.32 (14.07)
	•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8) •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8)	
	•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8) • 가사 및 육아 도우미(6)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STATA 1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절차로는 주요변인의 기초통계를 확인한 후, t-test와 분산분석, Pearson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차례대로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유아의 학습준비도 양상 및 성별에 따른 차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의 양상을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학습준비도는 평균 3.58점, 표준편차 0.37점, 1.7~4점의 분포를 보여 대체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학습준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결과, 학습준비도의 4개 하위요인 모두에서 여아의 학습준비도가 남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학습준비도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들(Duncan et al, 2007; Son, Lee, & Sung, 201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3〉 유아의 성별에 따른 학습준비도 비교

	성별	N	M(SD)	t
사회정서발달	남아	334	3.45 (.02)	3.13**
	여아	335	3.55 (.02)	
	전체	669	3.50 (.41)	
의사소통능력	남아	334	3.55 (.03)	2.50**
	여아	335	3.65 (.02)	
	전체	669	3.49 (.42)	
학습준비도	남아	334	3.42 (.02)	4.34***
	여아	335	3.56 (.02)	
	전체	669	3.64 (.40)	
학습에 대한 태도	남아	334	3.59 (.02)	3.57***
	여아	335	3.70 (.02)	
	전체	669	3.60 (.49)	

\*\* $p < 0.01$ , \*\*\* $p < 0.001$

## 2.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의 양상 및 취업모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직·간접 돌봄지원의 양상을 살펴보고, 취업모의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t-test 및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총 점수범위 1~4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2.24점, 표준편차 .59점으로 중간점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취업모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비교한 결과, 근로시간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직업군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집단은 전문기술직과 판매서비스직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판매서비스직이 감정노동의 요구가 많은 직군이며(Brotheridge & Grandey, 2002), 감정노동이 근로자의 감정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Grandey, Kern, & Frone, 2007)를 고려할 때,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감정적 소진이 가정에서의 자녀와의 상호작용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돌봄지원 중 직접돌봄지원은 0~70시간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2.56시간, 표준편차 11.04시간으로 응답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돌봄지원은 1.83~5점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 3.40점, 표준편차 .56점으로 대체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직접돌봄지원과 간접돌봄지원은 취업모의 근로시간 및 직업군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취업모 근로특성(근로시간, 직업군)에 따른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 비교

		근로특성	구분	N	M(SD)	t	F	Scheffe
부모-자녀 상호작용	근로시간		35시간 미만	152	2.31 (.05)	1.85	5.62***	a,b,d >c
			35시간 이상	517	2.22 (.02)			
	직업군		전문기술직 <sup>a</sup>	285	2.32 (.52)			
			사무관리직 <sup>b</sup>	178	2.21 (.50)			
			판매서비스직 <sup>c</sup>	131	2.11 (.47)			
			기타 <sup>d</sup>	75	2.18 (.59)			
		전 체	669	2.24 (.52)				
직접 돌봄 지원	근로시간		35시간 미만	152	1.13 (.49)	-1.83	1.36	
			35시간 이상	517	2.98 (.53)			
	직업군		전문기술직	285	2.73 (10.17)			
			사무관리직	178	3.59 (15.23)			
			판매서비스직	131	1.80 (8.13)			
			기타	75	.83 (5.07)			
		전 체	669	2.56 (11.04)				
돌봄 지원	근로시간		35시간 미만	152	3.42 (.04)	.41	2.48 <sup>+</sup>	
			35시간 이상	517	3.40 (.03)			
	간접 돌봄 지원		전문기술직	285	3.40 (.54)			
			사무관리직	178	3.45 (.54)			
			판매서비스직	131	3.42 (.60)			
			기타	75	3.25 (.57)			
		전 체	669	3.40 (.56)				

<sup>+</sup> $p < 0.1$ , \*\*\* $p < 0.001$

### 3. 학습준비도,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 근로시간의 관계

유아의 학습준비도,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 어머니 근로시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범주형 변수인 어머니 직업군은 상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학습준비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습준비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돌봄지원 가운데 직접돌봄지원은 학습준비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간접돌봄지원은 학습준비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타인이 제공하는 직접적인 양육보다는,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돌봄지원이 많아질 때 유아의 학습준비도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학습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취업모의 근로시간은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부적 상관관계를, 직접돌봄지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의사소통, 학습에 대한 태도가 저하되고,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낮아지며, 주양육자를 대신한 타인의 돌봄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표 5〉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학습준비도-사회정서발달	1							
2. 학습준비도-의사소통능력	.61***	1						
3. 학습준비도-학습에 대한 태도	.72***	.72***	1					
4. 학습준비도-인지적 능력 및 일반적 지식	.55***	.71***	.67***	1				
5. 부모-자녀 상호작용	.21***	.21***	.29***	.26***	1			
6. 직접돌봄지원	.04	.02	.06	.04	.09*	1		
7. 간접돌봄지원	.14***	.09*	.17***	.11**	.16***	-.03	1	
8. 어머니 근로시간	-.05	-.09*	-.10**	-.07	-.13**	.12***	-.04	1

\*  $p < 0.05$ , \*\*  $p < 0.01$ , \*\*\*  $p < 0.001$

#### 4.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과 취업모의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직·간접 돌봄지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 성별,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 소득을 통제하고, 어머니의 근로특성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습준비도 하위요인 중 사회정서발달에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직·간접 돌봄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표 6〉,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취업모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35시간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 모두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35시간 미만 8.1%( $F=3.22$ ,  $df=6$ ,  $p<0.01$ ), 35시간 이상 6.3%( $F=6.78$ ,  $df=6$ ,  $p<0.001$ )였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경우 부모-자녀 상호작용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beta=.29$ ,  $p<0.001$ ), 35시간 이상인 경우 부모-자녀 상호작용( $\beta=.14$ ,  $p<0.01$ )과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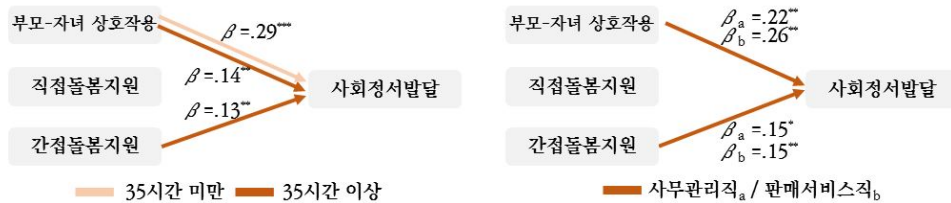
접돌봄지원( $\beta=.13, p<0.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취업모의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머니와 자녀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더불어, 타인에 의한 간접돌봄지원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취업모의 직업군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전문기술직과 기타 직군은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사무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은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각 8.0%( $F=3.57, df=6, p<0.01$ ), 14.6%( $F=4.71, df=6, p<0.001$ )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사무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 부모-자녀 상호작용(사무관리직:  $\beta=.22^{**}, p<0.01$  / 판매서비스직:  $\beta=.26^{**}, p<0.01$ )과 간접돌봄지원(사무관리직:  $\beta=.15, p<0.05$  / 판매서비스직:  $\beta=.15, p<0.01$ )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간접돌봄지원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즉, 학습준비도 하위 요인 중 사회정서발달은, 어머니와 직접 대면하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준비도 수준도 향상되며, 사교모임, 정서적 지지와 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는 간접돌봄지원 역시 사회정서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숙영, 1996).

〈표 6〉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취업모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

사회정서발달	근로시간				직업군								
	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		기타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부모-자녀 상호작용	.20 (.06)	.29***	.11 (.04)	.14**	.11 (.05)	.15*	.19 (.07)	.22**	.21 (.07)	.26**	-.02 (.10)	-.03	
돌봄 지원	직접돌봄지원	.00 (.00)	.06	.00 (.00)	.02	.00 (.00)	.02	.00 (.00)	.07	-.00 (.00)	-.07	.01 (.01)	.07
	간접돌봄지원	.04 (.06)	.06	.10 (.03)	.13**	.03 (.04)	.04	.12 (.06)	.15*	.10 (.05)	.15**	.21 (.10)	.27*
통제 변수	성별	.00 (.06)	.00	.12 (.04)	.15**	.05 (.05)	.07	.10 (.06)	.11	.18 (.06)	.24	.04 (.10)	.05
	모 교육수준	.04 (.04)	.09	.03 (.02)	.06	.02 (.04)	.04	.02 (.04)	.04	.08 (.04)	.17	.00 (.07)	.00
	가구 소득	.00 (.00)	.02	.00 (.00)	.02	.00 (.00)	.02	.00 (.00)	.03	.00 (.00)	.01	.00 (.00)	.11
상수	2.80 (.26)	.	2.65 (.14)	.	3.02 (.20)	.	2.41 (.26)	.	2.29 (.26)	.	2.65 (.36)	.	
Adj. R <sup>2</sup>	.081		.063		.014		.080		.146		.017		
F	3.22**		6.78***		1.70		3.57**		4.71***		1.21		

\* $p < 0.05$ , \*\* $p < 0.01$ , \*\*\* $p < 0.001$



[그림 1]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취업모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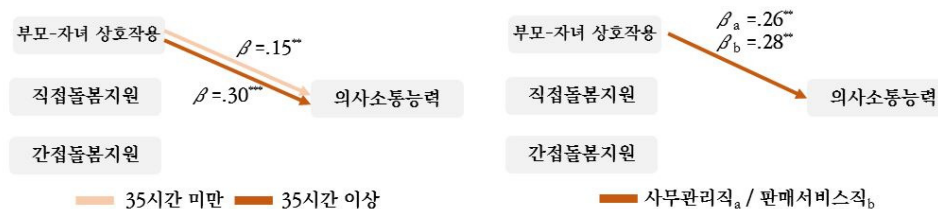
학습준비도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직·간접 돌봄지원이 미치는 영향은 <표 7>,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모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살펴 보았을 때, 35시간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모두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35시간 미만인 경우 5.2%( $F=2.37$ ,  $df=6$ ,  $p<0.05$ ), 35시간 이상인 경우 5.1%( $F=5.63$ ,  $df=6$ ,  $p<0.001$ )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35시간 미만 집단과 이상 집단 모두 부모-자녀 상호작용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5시간 미만: $\beta=.30$ ,  $p<0.001$  / 35시간 이상: $\beta=.15$ ,  $p<0.01$ ).

취업모의 직업군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전문기술직과 기타 직군은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았고, 사무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8.3%( $F=3.69$ ,  $df=6$ ,  $p<0.01$ ), 15.8%( $F=5.07$ ,  $df=6$ ,  $p<0.001$ )였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 부모-자녀 상호작용만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사무관리직: $\beta=.26$ ,  $p<0.01$  / 판매서비스직: $\beta=.28$ ,  $p<0.01$ ). 이와 같은 결과는 타인의 양육 지원보다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직접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영향은 취업모의 근로시간이나 직업군과 관계없이 유의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앞서 간접돌봄지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사회정서발달과는 달리,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언어적 표현을 통한 정확한 의사의 전달 및 이해와 관련되는 부분으로(Dockett & Perry, 2009), 어머니와 아동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아동이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또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표 7〉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취업모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

의사소통능력	근로시간				직업군								
	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		기타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부모-자녀 상호작용	.25 (.07)	.30***	.15 (.04)	.15**	.13 (.06)	.14*	.26 (.08)	.26**	.29 (.08)	.28**	-.00 (.11)	-.00	
돌봄 지원	직접돌봄지원	-.00 (.01)	-.00	-.00 (.00)	-.01	-.00 (.00)	-.03	.00 (.00)	.05	.00 (.00)	.01	-.00 (.01)	-.02
	간접돌봄지원	-.02 (.08)	-.02	.06 (.04)	.07	.02 (.05)	.02	.09 (.07)	.10	-.00 (.07)	-.00	.27 (.10)	.32*
통제 변수	성별	.05 (.08)	.05	.11 (.04)	.11*	.07 (.06)	.07	.03 (.07)	.03	.29 (.08)	.30***	-.07 (.11)	-.08
	모 교육수준	-.03 (.05)	-.06	.05 (.03)	.08	.00 (.05)	.00	.08 (.05)	.13	.11 (.05)	.18	-.04 (.07)	-.07
	가구 소득	-.00 (.00)	-.06	.00 (.00)	.06	.00 (.00)	.08	.00 (.00)	.03	.00 (.00)	-.06	.00 (.00)	.08
상수	3.14 (.33)		2.70 (.17)		3.02 (.26)		2.49 (.29)		2.34 (.33)		2.82 (.38)		
Adj. R <sup>2</sup>	.052		.051		.013		.083		.158		.034		
F	2.37*		5.63***		1.62		3.69**		5.07***		1.43		

\*  $p < 0.05$ , \*\*  $p < 0.01$ , \*\*\*  $p < 0.001$



〈그림 2〉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취업모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

학습준비도 하위요인 중 학습에 대한 태도에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직·간접 돌봄지원이 미치는 영향은 〈표 8〉,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모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5시간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모두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35시간 미만인 경우 8.9%( $F=3.47$   $df=6$ ,  $p<0.01$ ), 35시간 이상인 경우 13.7%( $F=14.70$ ,  $df=6$ ,  $p<0.001$ )였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근로시

간이 35시간 미만인 경우 부모-자녀 상호작용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beta=.33$ ,  $p<0.001$ ), 35시간 이상인 경우 부모-자녀 상호작용( $\beta=.23$ ,  $p<0.001$ )과 간접돌봄지원( $\beta=.13$ ,  $p<0.01$ )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취업모의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머니와 자녀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한 간접돌봄지원이 유아의 학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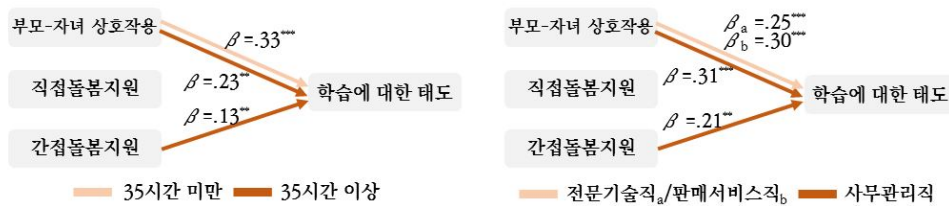
취업모의 직업군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기타 직업군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에서 모두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했으며, 전문기술직의 경우 7.8%( $F=5.04$ ,  $df=6$ ,  $p<0.001$ ), 사무관리직은 17.6%( $F=7.31$ ,  $df=6$ ,  $p<0.001$ ), 판매서비스직은 15.7%( $F=5.05$ ,  $df=6$ ,  $p<0.001$ )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전문기술직과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 부모-자녀 상호작용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전문기술직:  $\beta=.25$ ,  $p<0.001$  / 판매서비스직:  $\beta=.30$ ,  $p<0.001$ ). 반면, 어머니가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부모-자녀 상호작용( $\beta=.31$ ,  $p<0.001$ )과 간접돌봄지원( $\beta=.21$ ,  $p<0.01$ )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습에 대한 태도를 길러줌에 있어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필수적임과 더불어, <표 4>에 나타나듯 사무관리직이 타직업군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간접돌봄지원을 경험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것이 유아의 학습에 대한 태도 향상에 유의하게 기여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표 8>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이 학습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취업모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

학습에 대한 태도	근로시간				직업군								
	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		기타		
	<i>b(s.e)</i>	$\beta$	<i>b(s.e)</i>	$\beta$	<i>b(s.e)</i>	$\beta$	<i>b(s.e)</i>	$\beta$	<i>b(s.e)</i>	$\beta$	<i>b(s.e)</i>	$\beta$	
부모-자녀 상호작용	.24 (.06)	.33***	.19 (.03)	.23***	.20 (.50)	.25***	.27 (.06)	.31***	.26 (.07)	.30***	.03 (.10)	.05	
돌봄 지원	직접돌봄지원	.00 (.01)	.04	.00 (.00)	.03	.00 (.00)	.03	.00 (.00)	.10	-.00 (.00)	-.02 (.01)	.00 (.01)	.00
	간접돌봄지원	.05 (.07)	.06	.10 (.03)	.13**	.05 (.04)	.06	.17 (.06)	.21**	.04 (.06)	.05	.25 (.09)	.33*
성별	.06 (.07)	.07	.16 (.03)	.19**	.13 (.05)	.16**	.06 (.06)	.07	.24 (.07)	.29**	.08 (.10)	.09	
통제 변수	모 교육수준	-.02 (.04)	-.04	.03 (.02)	.06	.01 (.04)	.01	.05 (.04)	.09	.06 (.04)	.12	.01 (.07)	.01
	가구 소득	-.00 (-.00)	-.05	.00 (.00)	.08	.00 (.00)	.01	.00 (.00)	.05	.00 (.00)	-.07	.00 (.00)	.07
상수	2.80 (.28)	.	2.30 (.14)	.	2.69 (.21)	.	2.11 (.24)	.	2.29 (.28)	.	2.38 (.35)	.	

학습에 대한 태도	근로시간				직업군							
	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		기타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Adj. R <sup>2</sup>	.089		.137		.078		.176		.157		.065	
F	3.47**		14.70***		5.04***		7.31***		5.05***		1.85	

\*\*  $p < 0.01$ , \*\*\*  $p < 0.001$



[그림 3]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이 학습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취업모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

학습준비도 하위요인 중 인지적 능력 및 일반적 지식에 대해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직·간접 돌봄지원이 미치는 영향은 <표 9>,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35시간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모두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35시간 미만인 경우 8.6%( $F=3.37$   $df=6$ ,  $p<0.01$ ), 35시간 이상인 경우 9.5%( $F=10.11$ ,  $df=6$ ,  $p<0.001$ )였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부모-자녀 상호작용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5시간 미만: $\beta=.31$ ,  $p<0.001$  / 35시간 이상: $\beta=.20$ ,  $p<0.001$ ). 이는 취업모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부모-자녀 상호작용만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높아질 때 유아의 인지적 능력 및 일반적 지식 점수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취업모의 직업군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직업군에서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전문기술직 4.3%( $F=3.15$ ,  $df=6$ ,  $p<0.01$ ), 사무관리직 11.5%( $F=4.82$ ,  $df=6$ ,  $p<0.001$ ), 판매서비스직 16.4%( $F=5.27$ ,  $df=6$ ,  $p<0.001$ ), 기타 직군 9.1%( $F=2.24$ ,  $df=6$ ,  $p<0.05$ )였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 부모-자녀 상호작용만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에 비해(전문기술직: $\beta=.19$ ,  $p<0.01$  / 사무관리직: $\beta=.31$ ,  $p<0.001$  / 판매서비스직: $\beta=.32$ ,  $p<0.001$ ), 기타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간접돌봄지원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5$ ,  $p<0.01$ ). 단순노무직이 많은 기타 직군의 특성 상,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 전반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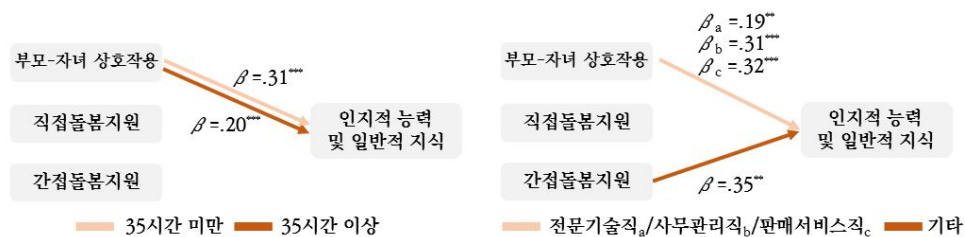


제적지위가 낮을수록 양질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못했을 가능성(Fannin, Barbarin, & Crais, 2018; Wilton & Barbour, 1978)이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됨을 감안할 때, 어머니와의 직접상호작용보다는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적 능력 및 일반적 지식 향상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9〉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이 인지적 능력 및 일반적 지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취업모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

인지적 능력 및 일반적 지식	근로시간				직업군																					
	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		기타															
	b(s.e)	β	b(s.e)	β	b(s.e)	β	b(s.e)	β	b(s.e)	β	b(s.e)	β														
부모-자녀 상호작용	.22 (.06)	.31***	.16 (.03)	.20***	.14 (.04)	.19**	.24 (.06)	.31***	.27 (.07)	.32***	-.03 (.11)	-.04														
돌봄 지원	직접돌봄지원		.00 (.01)		.04		.00 (.00)		.00 (.00)		-.01 (.00)		-.12 (.01)		.06											
	간접돌봄지원		.04 (.06)		.05 (.03)		.06		.00 (.04)		.00		.08 (.05)		.12		-.05 (.05)		-.07 (.10)		.30 (.10)		.35**			
통제 변수	성별		.08 (.06)		.10		.11 (.03)		.14**		.10 (.05)		.13*		.03 (.05)		.04		.17 (.06)		.21*		.05 (.11)		.05	
	모 교육수준		-.02 (.04)		-.03		.05 (.02)		.10*		.02 (.04)		.04		.02 (.03)		.05		.04 (.04)		.09		.04 (.08)		.06	
	가구 소득		-.00 (.00)		-.09		.00 (.00)		.09*		.00 (.00)		.03		.00 (.00)		.02		.00 (.00)		-.15		.00 (.00)		.13	
상수		2.97 (.26)		2.74 (.13)		3.09 (.20)		2.74 (.22)		2.87 (.261)		2.36 (.38)														
Adj. R <sup>2</sup>		.086		.095		.043		.115		.164		.091														
F		3.37**		10.11***		3.15**		4.82***		5.27***		2.24*														

\*p < 0.05, \*\*p < 0.01, \*\*\*p < 0.001



〔그림 4〕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이 인지적 능력 및 일반적 지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취업모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를 앞두고 취업모의 직장 및 가정의 병행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취업모를 둔 유아기 자녀의 학습준비도 발달 양상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및 돌봄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를 둔 만 6세 유아의 학습준비도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습준비도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박연정·정옥분, 2010; Son, Lee, & Sung, 2013).

둘째,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및 돌봄요인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직업군에 따른 차이를 보였지만, 직·간접 돌봄지원은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기타 직군, 판매서비스직 순서로 높은 점수가 보고되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전문기술직과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판매서비스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학습준비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돌봄지원 역시 학습준비도의 모든 하위요인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취업모 자녀에게 타인의 사회적 지원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조명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타인에 의한 직접돌봄 시간이 늘어났으며,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수준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직·간접 돌봄지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기타 직업군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간접돌봄지원이 모두 유의한 경우에도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기여하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선행연구(민미희, 2017; Connell & Prinz, 2002; Hsin & Felfe, 2014)와 일치하는 결과로, 특히 돌봄지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학습준비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취업모의 근로특성에 따라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영향과 더불어 사회정서발달과 학습에 대한 태도에서 간접돌봄지원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짧고 자녀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집단의 경우 부모-자녀 상호작용만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의 긴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는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라는 간접적인 형태의 돌봄이 유아의 학습준비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원의 도움정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발달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김숙영, 1995)과 일치하는 맥락이며, 특히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긴 집단에서 위와 같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추가로 제시한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군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직업군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전문기술직의 경우 부모-자녀 상호작용만이 학습에 대한 태도, 인지적 능력 및 일반적 지식에 영향을 미쳤다. 사무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학습준비도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일부 하위요인에 대해서 간접돌봄지원의 영향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반면 기타 직업군에서는 간접돌봄지원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상이한 근무특성이 양육 및 돌봄지원 실제와 관련되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취업모가 종사하는 직업군에 따라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경험 정도, 사회적 지지를 받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유홍준·김월화, 2006; 이윤정, 2014; Kalmijin, 1994).

한편, 위와 같은 발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어머니의 근로특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일부 집단에서 연구 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근로시간 및 직업군 집단으로 분류된 취업모 간에도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 있는가하면,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같은 집단 내에서도 세부 직업에 따라 근무환경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양육 및 주변으로부터 제공받는 돌봄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인 외에도 다른 영향력 있는 변인이 투입될 여지를 남긴다.

둘째, 패널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근로시간과 직업군만을 어머니의 근로특성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업 종사여부, 상용직 여부 등 취업모 집단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집단이다. 또한 같은 근로특성을 가진 집단 내에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직장과 그렇지 않은 직장은 양육 및 돌봄지원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렇듯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업모의 다양한 근무특성이 추가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취업모 자녀의 학습준비도 양상을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관련 요인을 밝혀냈다. 유아기 학습준비도를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주목했던 학습준비도의 인지적 측면(이수현·황혜정, 2014; 이정민·조재현·김영희, 2014) 뿐만 아니라, 사회정서발달을 아우르는 전반

적인 학습준비도 양상을 탐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취업모의 근무특성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유아기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제언함에 있어 근로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접근을 취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이를 앞둔 만 6세 아동과 취업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돌봄지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취업모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취업모에게 자녀의 학령기 전이를 앞둔 시점은 일-양육 병행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재희·김근진, 2018)라는 현상에 주목하고, 취업모의 근무환경과 자녀의 학습준비도를 연관시켜 탐색해보으로써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실증하였다.

둘째, 취업모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요인을 어머니의 근로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탐색하고 세분화된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취업모라는 집단이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양육 및 돌봄지원의 실제와 수요가 취업모 집단 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취업모의 근로시간과 직업군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유아의 학습준비도 향상에 주요하게 기여하는 요인이었으나, 어머니의 근로시간에 따른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을 살펴본 결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집단이 3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집단에 비해 다소 낮은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군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에도 기타 직군을 제외하고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던 전문기술직의 경우, 학습준비도의 일부 하위요인에 대해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기여할 수 있는 변인으로 지목되었다. 네 직업군 중 근무시간이 긴 축에 속한 사무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학습준비도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이 긴 직업군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가지는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취업모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 육아 공백을 채워주는 형태의 돌봄지원에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거나 근무유연성을 높혀 취업모가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할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확충, 돌봄인력 지원 등 직접돌봄지원보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무제 시행 등, 취업모가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

선택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보다 기여할 것임을 의미한다.

추가로 본 연구는 취업모의 유아기 자녀의 학습준비도 향상을 위해 간접돌봄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어머니가 장시간 근로하는 환경에 처해있거나, 기타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간접돌봄지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두드러졌다. 이러한 근무환경에 종사하는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빈번한 상호작용의 시간적 여유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게 되거나,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과 같이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을 보완해줄 수 있는 형태의 돌봄 지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 향상에 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론에 따라 본 연구는 취업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단순 노무 및 신체노동 비중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준비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돌봄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시사점을 종합하여볼 때, 취업모의 근로특성에 따라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양상이 상이하며,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간접돌봄지원의 효과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머니가 어떠한 근로특성을 가졌는가에 따라 유아의 학습준비도 향상을 위한 취업모 양육지원 및 근무환경 지원에 대한 접근을 세부적으로 달리해야 취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취업모 자녀의 학습준비도 향상을 위해 어머니가 자녀와 보다 밀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인지, 혹은 기관, 돌보미 등 외적 지원에 집중할 것인지, 어머니의 근로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김나현·이은주·곽수영·박미라(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88-200.
- 김대일(2008).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과 자녀교육. 노동경제논집, 31(2), 73-102.
- 김수정·곽금주(2012).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1, 2 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 간 관련성에서 차이: 양육효능감, 자아개념 그리고 친사회성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 85-105.
- 김숙영(1995).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 발달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용·정미경(2006).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 및 취업모의 인식 조사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 67-96.

- 김은설(2012). 육아정책 Brief 4호: 아버지의 육아참여, 아이를 행복으로 이끄는 조건.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민미희(2017). 가족 자원,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유아의 학업능력과 유아의 학습준비도 간의 구조모형 검증. 열린유아교육연구, 22(5), 1-19.
- 박연정·정옥분(2010).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관련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17, 37-54.
- 박혜경(2009).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한국여성학, 25(3), 5-33.
- 방경숙(2004).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태도, 양육부담감 및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과 건강 관련 변인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10(2), 217-224.
- 유홍준·김월화(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과거와 현재. 한국 사회학, 40(6), 153-186.
- 이민경(2007). 중산층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담론: 자녀교육 지원태도에 대한 의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3), 159-181.
- 이수현·황혜정(2014).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2), 385-410.
- 이재희·김근진(2018). 육아정책 Brief 66호: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취업모 지원 방안은?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정(2014). 아동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취업모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5, 117-136.
- 이정민·조재현·김영희(2014).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유아의 학습행동을 통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3), 341-365.
- 성혜영(2010). 연장근로에 따른 아동돌봄 형태와 일 가족 갈등: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9), 79-87.
- 전하람, 임혜정(2016).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직업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적 관여 및 지원의 매개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6(3), 141-169.
- 정미라·최혜정·강수경(2015). 영유아기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0(3), 119-141.
- 정해영·정옥분(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2), 277-297.
- 조은숙(1997).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정도와 지각된 대처효율성 및 관련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17).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18). 한국표준직업분류.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2](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2)에서 2018년 8월 26일 인출.
- Adi-Japha, E., & Klein P. S. (2009).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quality and cognitive performance of children experiencing varying amounts of childcare.

*Child Development, 80, 893-906.*

- Belsky, J., Gilstrap, B., & Rovine, M.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interaction in a family setting at one, three, and nine months. *Child Development, 692-705.*
- Brotheridge, C. M., & Grandey, A. A. (2002). Emotional labor and burnout: Comparing two perspectives of "people work".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1), 17-39.*
- Campbell, S. B., & von Stauffenberg, C. (2008). Child characteristics and family processes that predict behavioral readiness for school. *Early disparities in school readiness: How families contribute to transitions into school, 225-258.*
- Connell, C. M., & Prinz, R. J. (2002). The impact of childcare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on school readiness and social skills development for low-income Afr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0(2), 177-193.*
- Dockett, S., & Perry, B. (2009). Readiness for school: A relational construct.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34(1), 20.*
- Duncan, G. J., Dowsett, C. J., Claessens, A., Magnuson, K., Huston, A. C., Klebanov, P., ... & Sexton, H. (2007).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428-1446.*
- Entwisle, D. R., Alexander, K. L., & Olson, L. S. (2005). First grade and educational attainment by age 22: A new st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5), 1458-1502.*
- Fannin, D. K., Barbarin, O. A. & Crais, E. R. (2018). Communicative function use of preschoolers and mothers from differing racial and socioeconomic group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49(2), 306-319.*
- Grandey, A. A., Kern, J. H., & Frone, M. R. (2007). Verbal abuse from outsiders versus insiders: comparing frequency, impact on emotional exhaustion, and the role of emotional labo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2(1), 63-79.*
- Hsin, A. and Felfe, C. (2014). When does time matter? Maternal employment, children's time with parents, and child development. *Demography, 51(5), 1867-1894.*
- Kagan, S. L., Moore, E., & Bradekamp, S. (1995).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on School Readiness.*
- Kalmijn, M. (1994). Mother's occupational status and children's school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7-275.*
- Ladd, G. W., Birch, S. H., & Buhs, E. S. (1999). Children's social and scholastic lives

- in kindergarten: Related spheres of influence?. *Child development*, 70(6), 1373-1400.
- May, D. C., & Kundert, D. K. (1997). School readiness practices and children at risk: Examining the issues. *Psychology in the Schools*, 34(2), 73-84.
- McClelland, M. M., Cameron, C. E., Connor, C. M., Farris, C. L., Jewkes, A. M., & Morrison, F. J. (2007). Links between behavioral regulation and preschoolers' literacy, vocabulary, and math skill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947.
- Milkie, M. A., Nomaguchi, K. M. & Denny, K. E.(2015). Does the amount of time mothers spend with children or adolescents matt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2),355-372.
- Rudasill, K. M., Rimm-Kaufman, S. E., Justice, L. M., & Pence, K. (2006). Temperament and language skills as predictor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in preschool.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2), 271-291.
- Murphey, D. A., & Burns, C. E. (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4(2), 1-8.
- Raver, C. C., Jones, S. M., Li-Grining, C., Zhai, F., Bub, K., & Pressler, E. (2011). CSRPs' impact on low-income preschoolers' preacademic skills: self regulation as a mediating mechanism. *Child development*, 82(1), 362-378.
- Rouse, C., Brooks-Gunn, J., & McLanahan, S. (2005). Introducing the issue. *The future of children*, 5-14.
- Son, S. H., Lee, K., & Sung, M. (2013). Links between preschoolers' behavioral regulation and school readiness skills: The role of child gender.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24(4), 468-490.
- Vaughn, S., Hogan, A., Lancelotta, G., Shapiro, S., & Walker, J. (1992). Subgroups of children with severe and mild behavior problems: Social competence and reading achieve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2), 98-106.
- Welsh, J. A., Nix, R. L., Blair, C., Bierman, K. L., & Nelson, K. E. (2010).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skills and gains in academic school readiness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2(1), 43-53.
- Wilton, K. & Barbour, A. (1978). parent-child interaction in high-risk and contrast preschoolers of low socioeconomic status. *Child Development*, 49(4), 1136-1145.

-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8월 29일 / 게재 승인: 9월 14일
- 교신저자: 이강이,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kangyil@snu.ac.kr



## Abstract

###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 and Caregiving Supports on the School Readiness of Preschoolers : Focusing on Working Mothers' Job Characteristics

Kwon Sojeong and Lee Kangyi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effect of parent-child interaction and direct/indirect caregiving supports on 6-year-old children with working mothers and to test differences between groups with different job characteristics. Study participants are 669 pairs of working mother, child, and teacher.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child interaction affected child's school readiness in all groups except for others-occupational groups. Indirect caregiving support also had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readiness in some groups. Based on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 by reducing working hours or increasing work flexibility in order to secure time for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working mothers and preschool children. In addition, this study addressed that different components of childcare can affect school readiness depending on mother's occupational group.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detailed political support for working mothers under consideration of various job characteristics.

Keyword: school readiness, parent-child interaction, direct/Indirect caregiving supports, job characteristics